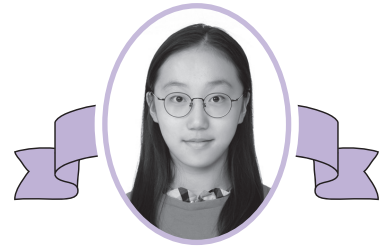


동상





가치 있고 같이 있는 우리 국토



이송윤 | 부천 상일초등학교 5학년

“이송윤님, 일어나십시오. 오늘은 여름휴가를 가는 날입니다.” AI 비서인 빅토리아가 나를 깨웠다. 지금은 2040년, 나는 32살이다. “그래, 그래. 일어났어. 으하아암.” 내가 빅토리아를 멈췄다. 나는 여름휴가를 맞아 오늘, 즉 7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서울에서 부산에 있는 친구 집까지 여행을 하기로 했다. 요즘은 집집마다 AI 비서가 있어서 마음 편히 여행을 다닐 수 있다. “빅토리아 아무래도 요즘 같은 날씨에는 반팔에 반바지를 입어야겠지? 그리고 우리 집 관리 잘 부탁해!” “네. 반팔, 반바지를 입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은 걱정 마시고 제가 환기부터 청소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역시 사물인터넷이다. 내가 사는 서울은 사물인터넷이 매우 발달한 도시이다. 25개의 구에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아 도시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605.25km²의 넓은 면적을 가꿀 수 있었다. 문화시설, 문화재가 풍부하고 한국의 수도인 만큼 한국의 교육 및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고, 20년 전과 달리 도시 기후현상을 해결해 나간 서울은 다양한 산업을 바탕으로 발전을 계속하고 있다. 이번 여행을 위해 나와 친구는 여행지마다 하루씩 쉬다가는 열차 국토사랑호를 선택했다. 내가 새벽 5시에 일어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국토순례! 우리 집과 마찬가지로 역과 열차 또한 매우 발전되어 있다. 나는 AI 로봇에게 표를 건네주고 창문과 가까운 A-32번 좌석에 앉았다. 의자가 내 몸에 맞추어 조절되었고, 열차는 나와 함께 여행을 떠날 친구가 사는 여주로 향했다. 경기도 남동단에 위치한 여주는 분지이며, 연교차가 상당히 크다. 나와 친구는 오늘 여주에 있는 박물관과 명성황후 기념관 등에 가보기로 했는데, 아쉽게도 여주의 도자기 축제는 4~5월에 열려서 참여하지 못했다. 열차가 멈췄고, 나는 생각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빠져나왔다. 저 멀리 손을 흔드는 내 친구가 보였다. 친구와 여주에 있는 여러 장소를 방문하고 나자 여주는 아직 서울만큼 드론택배, 사물인터넷, AI 비서가 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많지는 않았지만 아직도 1차 산업, 즉 농경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놀라웠다. 여주에 평야가 있어서 그런지 다양한 농작물도 있었다. 고구마, 참외, 쌀, 가지를 손에 들고 다시 열차에 올랐다. 시간은 오후 12시 30분이었다. 나와 친구는 이야기를 나누며 문경으로 향했다.

문경은 경상북도 서북부에 있는 시로 동쪽의 태백산맥에서 서쪽으로 뻗어 나온 소백산맥의 중앙부에 속하는 험준한 지형을 가진 곳이었다. 대륙성 기후가 나타나는 문경은 경상북도 제1의 광업산지였다. 하지만 현재는 그동안 광산개발로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고, 관광 휴양시설이 조성되어 휴가를 보내기 매우 좋은 곳이었다. 이곳에서도 기간이 안 맞아 축제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여행을 많이 다니는 내 친구가 준비한

코스가 있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멋진 경치를 가진 절, 심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는 온천, 4,200여 점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는 문경새재박물관 등에 방문한 뒤, 숙소에서 잠을 잤다. 다음날은 대구와 경주를 방문할 계획이었다. 나와 친구는 오전 6시에 다시 열차에 올랐다. 다음에 방문할 대구는 경상북도 남부에 위치한 광역시로, 여주시와 비슷하게 분지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그런지 열차에서 내리자마자 숨이 막힐 듯 더웠다. 대구는 옛날에는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섬유와 패션산업이 발달했다고 한다. 대구 역시 다양한 관광지를 갖고 있었는데, 근대 골목은 한국 관광의 별이라고 불릴 만큼 대구만의 특별한 관광지였다. 팔공산은 자연 관광지로 케이블카를 타자 대구 시내 전경을 볼 수 있는 곳이었다. 대구는 앞서 방문했던 여주나 문경과 달리 서울만큼 발달되어 있었는데, 문경에도 전해진 특산물 사과가 매우 맛있었다. 다시 열차에 올라 문화유산의 도시인 경주로 여행을 시작했다. 4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경주에서는 문화유산을 감상할 시간이 매우 많았다. 2000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만큼 경주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다. 5개의 지구로 이루어진 경주 역사 유적지구에는 곳곳에 신라시대의 유적이 숨어있었다. 최대한 많이 감상하기 위해 나와 친구는 밥을 15분 만에 먹고 안압지, 괘릉, 문무대왕릉, 감은사지3층 석탑, 불국사, 석굴암, 그리고 국립경주박물관까지 가보았다.

듣기로는 경주 남산에는 정말 많은 유적들이 자연 속에 숨어있다고 했지만 시간이 없어서 방문하지 못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꼭 가보고 싶었다.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 첨성대의 야경을 구경했는데 조명 때문이 아니라 첨성대와 경주라는 배경 그 자체로 다시 가보고 싶은 곳이었다. 평야와 산지로 이루어진 경주는 지형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찬란한 문화의 도시였다. 특히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사람을 인식해 자동으로 해설을 해주는 시스템은 서울에서도 본적이 없는 대단한 기술이었다. 하루 종일 바쁘게 걸어 다녔더니 숙소에서 침대에 눕자마자 잠이 들었다. 코까지 골면서.

드디어 부산으로 출발했다. 부산은 제2의 서울로도 불리는 도시로 해안가에 있어서 원료를 수입하고 제품을 수출하는 물류산업이 발달한 곳이다. 하지만 서울과 같이 다양한 산업이 발달해 제조업, 어업, 중화학공업 등 다양한 분야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발달하고 있다. “국토사랑호가 정착지인 부산에 도착하였습니다. 즐거운 여행되시길, 그리고 즐거운 여행되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리실 문은…….” 안내방송이 흘러나왔고 나와 친구는 열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시원한 바닷바람과 함께 바다냄새가 콧속으로 들어왔다. 우리는 부산에 사는 친구네 집에서 4일 동안 지내면서 해수욕도 하고, 다양한 장소를 신나게 돌아다녔다. 그렇게 8월 1일이 되었고, 나와 여주에 사는 친구는 이번에는 고속열차를 타고 1시간 만에 각자의 집으로 돌아왔다.

이번 여행은 단순히 보면 다양한 관광지를 방문하고, 지역마다 특산물을 알아본 평범한 여행일 수 있지만 또 다른 렌즈로 바라본다면 항상 나와 같이하는 아름다운 우리 국토에 대한 가치를 느낀 의미 있고 즐거운 여행이었다. “띠리리릭.” 익숙한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렸다. “오랜만입니다. 이송윤님. 이번 여행이 즐겁고 가치 있으셨나요? 표정이 매우 밝으시네요.” 빅토리아가 말했다. 나는 씩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지.”